

## Inside



## Focus

## 디지털 혁명 이끌 힘은 교양교육... 대학수업 뜯어 고쳐야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은 대학의 고급 교양 수업은 삶의 가치를 찾는 데 필수라고 역설했다. 대학에 네일아트나 발 마사지가 교양 수업으로 등장한 현실을 개탄했다. ▶14p



## Focus

## 경제 민주주의 전도사 월킨슨

영국 리처드 월킨슨 노팅엄대 명예교수는 소득 평등, 경제민주주의의 '전도사'다. 영국 총리와 야당 당수가 인용하는 공공지식인이다. 그를 인터뷰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영감을 얻었다. ▶10p

## Focus

## 인천시장 출사표 유정복 만났더니...

박심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만났다. 국회의원과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던지고 전격 출마를 선언한 그는 "힘있는 시장으로 인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11p

## Sports

## 비거리 늘리는 '마법' 골프볼

아마추어 골퍼들이 사용하는 프로용 골프볼은 스윙 스피드가 동반되지 않으면 비거리가 나오지 않는다. 골프볼 업체들은 스윙 스피드가 느린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볼을 앞다뒀 선보이고 있다. ▶27p

## Economy

## 비주일 경제사

## '팍스 몽골리카'가 부른 대재앙

1340년대 칭기즈칸이 이끈 몽골의 유라시아 대제국, 세계 최초로 동서 교역의 물꼬를 뒀지만 세계화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이란 대재앙을 불렀다. ▶22p

## jbc ch15하이라이트

교양  
오후 7시35분  
닥터의 승부

'코미디계의 대모' 배연정이 화장암과 당뇨 합병증을 극복한 비법을 공개했다. 스타의 24시간을 촬영한 건강 카메라에서는 현미찰살과 귀리, 수수 등 9가지 잡곡이 들어간 밥만 챙겨먹는 배연정의 식단이 공개된다.

드라마  
오후 8시45분  
마이

지옥은 미국으로 떠나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고 인호는 정치인의 꿈을 접을까 고민한다. 상남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괴로움에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운다. 그러던 중 순택의 집에서는 서울 집과 가계를 모두 처분하고 임해로 내려가려 한다.

채널 번호·프로그램 안내는 02-751-6000

## 충청SUNDAY

발행인·인쇄인 송필호 회장 홍석현 편집인 김교준 편집국장 남윤호

2007년 3월 18일 창간 / 2007년 2월 22일 등록 번호 서울다07635호(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신청·배달 및 구독료 관련 문의 080-023-5005  
광고접수 02-751-5555, 02-751-5803 / FAX 02-751-5806 /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080-023-5002 / FAX 02-751-5176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00-75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 안내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5,000원 / 1부 1,000원

## 사설

## 아베 '고노 담화' 발언, 행동으로 믿게 하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일제 시절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군·관헌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지 않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5일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 진전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일본 각료로는 처음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95년 8월 무라야마 도미미치(村山富市) 총리가 종전 60주년을 맞이해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했다. 이번엔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도발적이던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

인 일이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인식의 '유효기간'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수차례에 걸쳐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을 만하면 새로운 역사 도발로 대화 무드를 깨버리지 않았던가. 아베 총리 본인도 그동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때마다 양국 관계는 크게 요동치곤 했다.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고노 담화 계승 방침을 밝힌 만큼, 양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유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한 데 대한 성의 표시일 수도 있다. 일본은 특히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아베 총리의 외교적 성과로 장식하려는 듯하다.

아베 총리의 진정성은 앞으로 일본 정부나 집권당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면 검증할 수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고노 담화와 관련해 "검증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리와 각료의 엇갈린 발언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한 고노·무라야마 담화 계승 발언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한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그 정신과 마음가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걸핏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제 와서 사과 경위를 검증한다거나 사과의 취지에 어긋나는 언동을 일삼으면, 사과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측의 그런 이중성이 사라져야 한·일 관계는 더 이상 과거로 후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그들의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잊어서 안 된다.

## 김황식 "서울시장 탈환"... 정몽준 "나이 있으신데"

## 새누리 서울시장 후보 신경전 가열... 야권 연합,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김황식 전 총리의 '역전 굿바이 히트'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야구로 치면 앞서가는 쪽이 이긴다"고 응수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여권 유력자들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야권도 16일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성보중학교에서 열린 지역 축구경기에 참가해 "야구로 치면 5대 몇점으로 앞서가는 쪽이 대개 이긴다"고 말했다. 전날 김 전 총리가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는 발언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 의원은 "연세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셨으면 한다"며 김 전 총리 자신보다 세 살 많은 후보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이어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 입당 원서와 경선 후보자 서류를 제출한 뒤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여권의 서울시장 탈환에 하나의 밑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의 컨셉트는 '바르고 다르게'다.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선거, 이벤트성 행사를 줄이고 출마선언이나 기자회견도 소박하게 하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양측에서 330명씩 발기인이 참여하며 당명과 발기 취지문, 참정위 규약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당명 후보로는 새정치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국민연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당은 서울·경기·부산·대전·인천·광주 등 6개 지역을 돌며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뒤 23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우군민 제주도지사는 15일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지사는 새누리당이 제주 경선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르기로 결정할 때 대해 반발해 왔다. 우지사는 "무소속 출마 여부를 조만간 밝히겠다"고 전했다.

## 영·정조 시기 '여성 군자' 사주당 이씨 기록 찾았다

(師朱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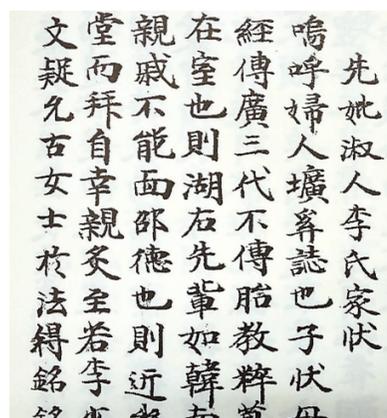
## 선비 가르친 조선 후기의 '사임당'... 아들 유희가 남긴 『가장』서 당시 행적 확인

(家狀)

안성규 기자,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인문연구센터장 askme@joongang.co.kr

조선시대 현모양처이자 최고 여류 지식으로 꼽혔던 신사임당에 버금갈 만큼 학식과 부덕이 뛰어나 여성군자로 불린 사주당 이씨(1739~1821)에 관한 기록이 발굴됐다. 영조~정조 시대 인물인 이씨는 동해모의(東海母儀, 해동 어머니의 모범)라는 호칭을 받기도 했다. 전 성리학 수준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영조의 경연관(經筵官)이었던 한원진·송명용 같은 호서(湖西)거유(巨儒)의 칭찬을 받았다. 특히 남당 한원진은 사주당이 12세인 1751년 사망한 사람이어서 그가 10대 소녀인 사주당을 칭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주당이 영제 소녀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주당은 또 후에 호조참판이 되는 이양연, 순조 때 진사 3등으로 합격하는 이면철 같은 이가 성인이 된 뒤 가르침을 주기도 했다. 사주당은 경사(經史)를 주로 연구했으며 결혼 직후엔 당호를 희현당(希賢堂)으로 했다가 '주자(朱子)를 배운다'는 뜻인 사주당(師朱堂)으로 바꿨다.

그는 남편 유희규와 성리학 토론을 했고 붕당의 다툼(당쟁)에 대한 견해도 드러내 성리학 학식에서 선비들과 어깨를 견뎠다. 특히 서인(西人)이 노론·소론으로 분열된 데 대해 중심 인물



사주당 이씨를 쓴 가장(家狀).

인 노론의 송시열과 소론의 윤증 모두를 비판하는 중립적 면을 보여 주기도 했다. 나아가 극심한 붕당(朋黨) 쟁론의 원인을 '극원(克怨)'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며 원망한다'는 뜻이다. 조선말기 이견장이 『당의통략(黨議通略)』에서 "시비가 불분명한 일로 거국적인 붕당 시비가 200년간 계속됐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내용은 사주당의 아들이자 『언문지』 『물명고』의 저자로 유명한 조선 후기 백과전서파 실

학자 유희(柳僖)가 쓴 『선비숙인이씨가장(先妣淑人李氏家狀)』(어머니 사후 쓴 기록·사진)에 나온다. 『가장』은 200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된 유희의 문집 『문통(文通)』 가운데 『방편자문록(方便子文錄)』권 2에 들어 있었는데 본지의 요청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용만 책임연구원이 이번에 처음 완역했다.

『가장』에는 '노년에 전후의 약간의 문초를 모아 태우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주당이 여러 편의 저술을 했음을 의미한다. 그중엔 결혼 전에 쓴 『가례(家禮)』와 『가편여집』이 있다. 결혼 뒤엔 기거·음식에 관한 절도를 수집하고 경전 가운데 아이에게 적합한 내용을 부록으로 붙인 뒤 언문으로 풀어 책을 만들었다. 남편은 『교자집요』라는 제목을 달았다. 20여 년 뒤 62세에 사주당은 『교자집요』의 내용을 보충하고 재편집해 『태교신기(胎教新記)』를 저술했다. 조선시대 유일한 태교서적이다.

박용만 책임연구원은 "행장은 치우치지 않고 어머니 사주당의 참모습을 상세히 보여 주는 드문 자료"라며 "대부분의 조선 여류 지식인은 출가 뒤 남편의 후원으로 재능을 발휘했지만 사주당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현모양처를 넘어 학인으로 자리 잡은 큰 인물"이라고 평했다.

▶관계기사 12~13p